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50 굿모닝 채널A	09:30 2012런던올림픽 (탁구,수영,역도)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2012런던올림픽특집 MBC뉴스투데이 1~2부	05:00 런던와이드1~2부
50 박중진 의 궤도난마(재)	50 인간극장	30 굿모닝 런던	10 2012런던올림픽특집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런던와이드 3부
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멘터리 휴먼로드 지구촌 사람들 3	30 아침 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이 사랑아> 40 2012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2부	30 MBC뉴스 45 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런던2012특집 <유도 왕기훈> 00 좋은아침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40 채널A스포츠 런던라이브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아름다운 사람들(재)			00 런던2012특집 SBS 12 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KBC스페셜 <영미를 부탁해> 50 SBS뉴스
0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05 2012런던올림픽특집 올림픽 사이언스(재) 55 바른말 고운말			00 런던2012특집 SBS 12 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30 특선다큐 세계대기행
00 채널A뉴스 20 구름방	00 KBS 뉴스12			00 런던2012특집 SBS 12 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30 특선다큐 세계대기행
50 불멸의 국가대표	00 2012런던올림픽 중계식플러스	00 사랑의 가족 30 비타면(재)		
00 이연경의 세상만사 1~2부	00 KBS뉴스 10 2012런던올림픽 중계식	30 런던올림픽 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 <영국편1-런던(재)>		
30 KBS뉴스타임 35 메타제트(재)				
00 오리비전(재) 30 채널A스포츠 런던라이브(재)				
50 박중진 의 궤도난마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부부의 숲속 친구들(재) 30 TV 유치원 50 2012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양궁>	00 내사랑 똥 30 MBC뉴스 40 2012런던올림픽 <배드민턴,수영여자>	00 안녕 지우야 30 영광의 도전 내일의 챔피언
00 신기한 동물나라 30 글로벌 한식토크 <쇼킹스페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런던2012 <유도 남녀>
40 남랑특집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홍기2)(재)	00 KBS 뉴스7 30 러브인 아시아	00 2012런던올림픽 <양궁,핸드볼 남, 탁구 여>	00 2012런던올림픽 <수영 남자>	
50 그 여자 그 남자 스페셜(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00 뉴스A	00 시사기획 창 50 아름다운 사람들	55 2012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유도 남녀, 양궁 남녀>	55 2012런던올림픽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런던 2012 특집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50 런던2012 <유도남, 양궁 남녀, 탁구녀>
10 박중진 의 궤도난마(재) ①:10 남랑특집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홍기1)(재)	25 KBS뉴스 30 2012런던올림픽 <기계체조>	30 2012런던올림픽 <탁구 여, 양궁 남녀 펜싱 남, 플리레>	15 2012런던올림픽특집 <마린보이 금빛 물살을 가르다> 55 2012런던올림픽 <탁구, 여자하키, 수영 남녀 펜싱 남자 플리레>	50 나이트라인 ①:10 런던2012 <양궁 남녀, 탁구녀 역도남>

잇을만 하면 불거지는 아이돌 그룹 '왕따설'

“상품화로 인한 균열 ... 멤버간 소통 필요”

걸그룹 티아라(사진) 소속사가 멤버 화영을 팀에서 방출할 예정에 따라 그룹 내 팀워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30일 이같은 발표에 앞서 티아라의 일부 멤버들이 화영을 겨냥한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며 '화영 왕따설', '불화설'을 야기한 티아라 소속사의 부인에도 이번 사태를 보는 네티즌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그간 소녀시대의 태연, 카라의 박규리, 애프터스쿨의 유이, 티아라의 보람 등 일부 멤버의 '왕따설', '불화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네티즌 사이

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슈퍼주니어의 예성은 6집 발매 기자회견에서 “그룹들을 보면 멤버끼리 사이 안 좋은 팀이 99%”라며 “현존하는 가수 중 사이 좋은 팀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아이돌 그룹들의 태생적인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는 “요즘 아이돌 그룹은 음악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뭉치고 성장한 팀이 아니라 기획사가 인위적으로 꾸린 팀”이라며 “과거 팀들은 음악적인 문제가 해결



사유였지만 팀 내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다. 멤버를 조합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균열”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내 과다 경쟁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 멤버가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면 갈등이 부각된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일부 기획사는 인기있는 멤버가 벌어들인 개별 수익을 다른 멤버들과 동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요즘은 멤버 수가 많은데다가 데뷔 당시 멤버에서 증원 및 교체와 잇따라 새 멤버의 합류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 정덕현 씨는 “티아라 사태의 핵심은 특정 멤버의 문제라기보다 멤버 간, 기획사 간에 소통이 안된 것”이라며 “감정의 코칭을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내적, 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시사교양작가 778명 'PD수첩' 집필 거부

KBS, MBC, SBS, EBS 등 방송 4사 및 주제작사 시사교양작가 778명이 MBC 'PD수첩' 집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30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PD수첩' 작가 6명 해고를 결

정한 MBC에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보이콧 참여 인원은 국내 방송에 종사하는 시사교양작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작가 전원 해고는 그간 물리적, 정신적 탄압 아래에서도 작가

적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PD수첩' 작가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며, 이후에 대체될 들어 올 작가들을 향한 사전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사교양작가들을 부당한 조치에 의해 동료작가들이 거리로 내몰린 빈자리에 들어가 사장이나 간부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작가군으로 여겼다면 이는 전체 시사교양작가들에 대한 모독이며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BS			
06:00 헬스투데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의순의 맛에서 영양까지 청진 실속법>	15:10 특수요원 오소	19:35 달라졌어요
06:30 아름다운 소원	11:20 부모 <5살4살3살 삼남매 매일같이 전쟁 중>	15:35 구라기 상상여행	20:25 지식채널e
07:00 어린이왕자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똥똥똥 유치원 1~3(재)	20:30 EBS 뉴스
07:30 아기공룡 둘리	12:10 특집다큐멘터리 기업의 힘	16:30 신글방을 피지(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2:30 EBS 아침뉴스	16:45 숲 속 친구 파파플라(재)	21:30 한국기행 <한려수도 7부, 비타면의 금강산 남해 금산>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00 EBS 아침뉴스 생활-초등 1년	17:00 방귀대장 똥똥이(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학교의 재탄생>
08: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3:30 EBS 아침뉴스 생활-초등 3년	17:15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22:4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8:45 숲 속 친구 파파플라	13:40 EBS 아침뉴스 생활-초등 5년	17:30 똥똥똥 울리(재)	23:10 다큐 10+
09:00 방귀대장 똥똥이	14:00 지식채널e	17:45 로보카 폴리(재)	24:00 지식채널e
09:10 뽀로로와 노래해요	14:10 EBS 다큐 프라임 <치매를 부탁해 2>	18:00 생방송 특목 보너스1~4	24:05 희망풍경
09:15 푸비푸비 눈보리	14:30 EBS 다큐 프라임 <최대한의 한국근현대사>	18:50 외골똥을 친구들	24:35 특집 다큐멘터리 기업의 힘
09:30 똥똥똥 울리		19:00 똥똥	
09:45 신글방을 피지		19:10 어린이왕자(재)	
10:00 달라졌어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4 대부수능 스타트 <남궁민의 국어 A형>	10:00 2012 수능완성 <강봉균의 한국지리>	07:00 2012년 공민중재사 시험 대비 강좌	15:2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0:50 <윤정환의 영어 A형>	10:50 <송정석의 생활11>	07:30 EBSe 생활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01:40 기본과 특별한 <영문법 출제특기>	11:40 <송원희의 지구과학11>	08:00 매직 TEST 시험대비강좌	16:20 EBS 여름방학생활 초등 1년
02:30 2012 내신 6급 <이미지의 수학(상)>	13:00 공부의 왕도	08:3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대비 강좌	16:40 EBS 여름방학생활 초등 3년
03:20 고2 학기 선행특강 <김경환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3:30 2012 수능완성 <한도균의 법과사회>	09:10 EBS 여름방학 특강 중1 <영어>	16:50 EBS 여름방학생활 초등 5년
04:10 <김현의 적분과 통계>	14:00 <박봉의 정치>	09:50 <수학>	17:20 초등 개념 잡기 <수학>
05:00 <김규중의 기하와 벡터>	15:00 <민병권의 세계지리>	10:30 EBS 여름방학 특강 중2 <영어>	18:00 중학개념 끝내기 <과학>
05:50 2012 포스 <김경환의 기하와 벡터>	16:00 <장진선의 물리1>	11:10 <수학>	18:40 <국어>
06:40 2012 탐스런 <박봉의 사회문화>	17:00 <기상호의 화학1>	11:50 EBS 여름방학 특강 중3 <영어>	19:20 <영어>
07:30 <이은희의 화학1>	18:00 <정현경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2:30 <수학>	20:00 <수학>
08:20 2014 대부 수능 스타트 <이은희의 화학1>	18:00 <정현경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3:10 이야기 한국사	20:40 EBS 여름방학 특강 중1 <영어(재)>
09:10 <이하영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9:00 <박봉의 사회문화>	13:50 이야기 수학사	21:20 EBS 여름방학 특강 중2 <영어(재)>
	20:00 <윤해정의 언어>	14:30 EBS 클럽뱅크	22:00 EBS 여름방학 특강 중2 <수학(재)>
	21:00 <윤연주의 외국어 영역>	14:50 뽀뽀한 영어	22:40 EBS 여름방학 특강 중3 <영어(재)>
	22:00 <최태재의 한국근현대사>	15:10 과학이 특목!	23:20 EBS 여름방학 특강 중3 <수학(재)>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7월 31일(음 6월 13일 癸巳)
子	36년생 편안하 마음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48년생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60년생 속 시원하게 모두 알게 되리라. 72년생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자. 84년생 상대의 마음속부터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7, 02
丑	37년생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49년생 삶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 61년생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73년생 자신의 배후에서 호령하는 이가 있다. 85년생 기급적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5, 55
寅	38년생 지난날의 행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50년생 서늘한 바람과도 같은 이가 있다. 62년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이를 것이니라. 74년생 안심하고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놔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6, 91
卯	39년생 종합했을 때 훨씬 더 대체로 위지리라. 51년생 말야 보는 이가 바뀌어 혼란스럽겠다. 63년생 원대한 포부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이 문제라. 75년생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 08
辰	40년생 실제로 가능한 일이나 의사임을 버리고 독려 하라. 52년생 주기적인 반복 현상이니 크게 열려라 바는 아니다. 64년생 받을 것은 빠짐없이 잘 수령하자. 76년생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진다.	행운의 숫자 : 38, 18
巳	41년생 행복감이 넘쳐흐르겠다. 53년생 느린 바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꾸밈없이 대하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편하고 복된 것이니라. 77년생 작은 이익에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 손해다.	행운의 숫자 : 34, 62
午	42년생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리라. 54년생 현상의 작용력이 커서 큰 성과를 이루겠다. 66년생 갑옷과 같은 튼튼한 방어벽이 필요하다. 78년생 두터운 인심으로 대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리라.	행운의 숫자 : 44, 50
未	43년생 오랫동안 별만 내리찍는 더위에 단비가 내리는 이치다. 55년생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67년생 재발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이 실수적이다. 79년생 만사가 흥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76
申	44년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을 하자. 56년생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줘야 이해가 빠르다. 68년생 비수할 터이니 어림잡아서 처리해도 된다. 80년생 내용을 대강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실행하자.	행운의 숫자 : 61, 73
酉	45년생 경사가 일어날 수이니 미리 준비하자. 57년생 조리 있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69년생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안목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81년생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4, 86
戌	46년생 인정받게 되는 행운이 따르리라. 58년생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70년생 장치를 활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82년생 적응하기만 하면 발전된 생활을 이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90
亥	47년생 앞길에 구상한 후에 대범하게 추진해야한다. 59년생 예상과는 전연 판 판으로 흘러 갈 수다. 71년생 무겁게 처신 하더라도 훨씬 더 빛나리라. 83년생 힘써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69, 0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I owe them a lot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요	五里霧中(오리무중) 다섯 오, 마을 리, 안개 무, 가운데 중	尾生之信 wěi shēng zhī xìn 미생의 약속	奥さんとはどこで会いましたか。 사모님과 어디서 만났습니까
A : Do you want to take care of your parents when they are older? B : Sure, I owe them a lot. I want to pay them back for all they've done for me. A : Wow! You're a just real son! Every young guys better take after yours. B : Thanks! It's natural for us to do filial duties.	오리무중(五里霧中)이란 '오리(五里)나 되는 짙은 안개속에 있다.'는 뜻이다.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장해(張楷)는 '춘추', '고문삼서' 등에 정통한 학자여서 제자가 100여 명에 이르 그 이름 있는 학자들이 모두 그의 문을 두드렸으며, 세도가들도 그와 가까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때 묻은 자들과 섞이기를 싫어하여 시골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조정에서는 그를 아껴 여러 차례 예를 다하여 맞이하려 하였으나 그는 병을 핑계로 끝내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장해는 학문만 잘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여 곧잘 오리(五里)에 걸쳐 안개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당시 관서에 살던 배우(裴優)라는 사람도 도술로 삼리(三里)에 걸쳐 안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오리 안개를 배우고자 장해를 찾았으나, 장해는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전국시대 노(魯)나라에 미생(尾生)이 개울다리 밑에서 연인을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상대는 나타나지 않고 미생은 기다리다가 개울물이 불어나 다리를 붙잡고 죽었다는 융통성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생을 답답한 경우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목숨 바쳐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뭍 해도 미운 눈이 있듯 미리 박힌 미운 가지 때문에 말을 바꾸든 안 바꾸든 좋게 보이지 않죠. 말 바꿈이 '나의 욕심' 또는 '나를 둘러싼 집단의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 '공공선'을 위해서인가는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합니다.	A : 奥さんとどこで会いましたか。 B : 大学の時、図書館で会いました。 A : 奥さんから話しかけましたか。 B : はい。僕の方から声をかけました。 A : 사모님과 어디서 만났습니까. B :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A : 안 씨가 말을 걸었습니까. B : 예, 네 쪽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A :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돌봐 드릴 거예요? B : 암요, 전 그 분들한테서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저는 그 분들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대신해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요. A : 아! 당신이 정말 진짜 아들이군요. 모든 젊은 친구들이 당신을 본받았으면 좋겠군요. B : 고마워요, 사람들이 효도를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take care of ~ = ~을 돌보다 * owe : pay back	[출처] 『후한서(後漢書)』 <장해전(張楷傳)>		図書館で会う 도서관에서 만나다 話しかける 말을 걸다 声をかける 말을 걸다 大学時代 대학 시절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